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

여러분은 시험이 끝난 뒤, “이제 좀 쉬자!” 하며 긴장을 풀어 본 적 있나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열심히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막상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멋지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믿음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하나님께 묻는 제사장의 옷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울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기드온이 베푼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성적이 오르면 기도는 줄어들고, 친구가 생기면 예배가 뒷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대신 스마트폰, 인기, 인정, 성공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잘될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공감하시네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사기 8:22~35절 다 같 이

설 교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공감하시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잘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이스라엘 백성은 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나요?
기드온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달랐나요?
2.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